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3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송파구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전국 보급
- ‘윤리경영은 없다’… 한국 기업 신뢰도 28개국 중 ‘꼴등’
- LX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커뮤니케이션연맹 비전어워드서 금상
-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활동 평가… 우수 20% 인센티브
- ‘삼성’ 브랜드이미지 추락… 품질·윤리경영 ‘비상’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현대커머셜] Executive Compliance Message의 활용

3. 청렴 위반 사례

- 동일한 부정청탁
- 여러 종류의 금품 등 제공 사례

4. 지식마당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송파구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전국 보급

송파구가 자체 개발한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2.0’을 전국 43개 시군구에 보급했다. 2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2.0’의 보급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송파구의 우수한 청렴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자치단체 31개 기관, 48명의 직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2011년 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전 공공기관에서 간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평가 실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웹 방식의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자체 개발, 전국에 배포했다. 시스템에서는 평가자의 정보 노출과 평가 결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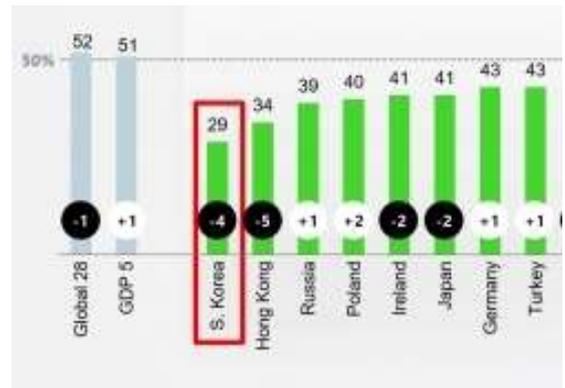
구는 2017년 현재 43개 시군구에 시스템을 보급하여, 8600여만원(개별 단가 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이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매년 약 8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6월에는 안전행정부 주관 자치단체 우수정보 시스템에 선정되었으며, 권익위 권고 통계산출 방식을 적용,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평가자의 비밀보장 등의 강화로 응답률을 제고하고 전국 시군구 간부청렴도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nxo=2017021609472309208>

2. ‘윤리경영은 없다’… 한국 기업 신뢰도 28개국 중 ‘꼴등’

전 세계 28개국에서 조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는 ‘에델만 신뢰도 지표 조사’에서 한국 기업의 신뢰도가 조사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기업, 정부, 미디어, NGO 등 주요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경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기업신뢰도 1위인 인도네시아는 76점이며, 대한민국은 29점으로 조사되었다.

에델만 코리아 장성빈 사장은 “매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지만, 이번 우리나라의 결과는 사회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정부, 기업 등 사회 주요 기관들이 각자 책임감을 갖고 대중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욱 열린 태도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05634&g_menu=050300&rrf=nv

최근 동향 및 소식

3. LX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커뮤니케이션연맹 비전어워드서 금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2015~2016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기관인 LACP과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이다.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우수기업,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사회공헌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LX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심사위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획득해 상위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LX는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를 해외도 인정받기 드문 사례”라며 “사회적 책임경영을 앞장서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3316086615832488&DCD=A00401&OutLnkChk=Y>

4.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활동 평가 ...우수 20% 인센티브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기구 활동을 매년 평가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의 우수기관은 감사유예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며, 하위 20%는 자체감사 활동 전반을 개선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조직, 예산, 인력 등 투자·출연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분야 16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년 평가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까지이며, 내부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활용해 자체감사활동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올해 첫 감사협의회는 지난해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서울메트로의 청렴메트로에서 주관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투자·출연기관 자율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73200004.HTML?input=1195m>

5. '삼성' 브랜드이미지 추락...품질·윤리경영 '비상'

2월 20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Harris Poll)이 발표한 '2017년 미국내 기업 평판지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49위를 기록하여 지난해보다 42계단 추락했으며, 48위를 기록한 현대차보다 밀리며, 국가대표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해리스폴은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기업 명성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리더의 불법 행위(응답률 85%)'를 지목하였으며, 제품·서비스에 대한 거짓 또는 오해(83%), 회계 조작(82%), 보안·정보 침해(74%), 작업환경·문화(67%), 직장 내 차별(65%),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65%) 등도 기업 명성의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유령계좌' 스캔들에 휩싸였던 미국 은행 웰스파고,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의 폭스바겐, 삼성이 지난해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3258>

윤리경영 실천 사례

[현대커머셜] Executive Compliance Message의 활용

1. 윤리경영 프로그램

현대커머셜은 윤리경영 핵심가치를 ▲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과 기여 ▲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 추구 ▲ 고객과 주주,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초일류 기업 달성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윤리경영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현대커머셜 윤리경영 체계>

No	윤리경영 체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제보 Hot-Line 모바일 웹 운영 옴부즈인 제도 운영 사이버감사실 운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부서별 준법감시보고서 관리 고객정보 보호 공정거래 준수 Regulatory Compliance Tracking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liance 통합교육 신입/경력직 Compliance 입문 교육 UCC Compliance 동영상 공모 Compliance Interview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찾아가는 Compliance 교육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ecutive Compliance Message 전파

2. 내부신고채널

- 외부제보 Hot-line 모바일 웹 운영
임직원 전원이 외부 제보채널 아이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윤리경영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함(편리성 제공)
- 옴부즈인 제도 운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Compliance 관련 이슈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내 Compliance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린 Compliance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며, 엄격하게 선발된 옴부즈인이 직원들로부터 사내 각종 윤리경영 위반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에서 직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등 가장 친근한 제보 채널로 운영하고 있음
- 사이버감사실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 홈페이지 內 “사이버감사실”을 오픈하여 운영함

3. 내부통제

-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투명성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시점에 Welcome Kit(선물/접대 금지 원칙, 상호 윤리 준수 등 거래의 기본원칙을 설명)을 교부하고 당사의 윤리경영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기반 조성
- 부서별 준법감시체계 구축
부서내 자체 준법감시담당자를 선정하여 부서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점검 체계를 통해 발생가능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자체 예방프로그램 가동

윤리경영 실천 사례

- 고객정보보호 평가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안의 강화를 위해 개인별 Security Index를 PC내 구현하고 상시 임직원의 보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함
- Regulatory Compliance Tracking 시스템 구축
각종 법령의 이행 규정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부서별 이행 완료기간을 Check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Alarm 기능과 이행완료 등록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운영

4. 교육 / 홍보

- Compliance 통합 교육
전 임직원에게 대한 Compliance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교육으로 전환하고,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해 임직원들이 직접 사례를 구성하여 연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Test를 실시함으로써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
- 신입/경력직 Compliance 입문교육
신입/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Compliance 인식 제고를 위해 입사한 첫날 가장 먼저 Compliance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Compliance 관련 15개의 테마를 일주일간 학습하며, 각 과제별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최종 Test를 수료하면 준법감시인이 직접 수료 축하 및 당부사항에 대한 메일을 보내고 있음
- UCC Compliance 동영상 공모
임직원들이 직접 Compliance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임직원의 Compliance 인식 및 체감도 제고

5. 현장점검

-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및 교육지원
현장에서 누락될 수 있는 Compliance 위반 사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월 특정 Compliance 테마

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예방활동 수행 및 Compliance 제반 규정에 대해 Remind 교육 병행

6. 경영진 참여 프로그램 도입

- Executive Compliance Message 전파
경영진의 Compliance 의식을 직원들과 공유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매월 경영진이 순번을 정하여 Compliance 특정 테마를 통해 강조할 사항과 당부사항 등을 제시하고, 이 내용을 월 3회 홈페이지의 Pop-up창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유

7. 향후 도입예정 프로그램

- Compliance Champion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실천에도 칭찬을 활성화함으로써 Compliance 준수에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보안 실천, 윤리경영 위반제보, 준법실천 등 각 분야별 우수사례를 주위의 동료들이 추천하는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고 전 직원이 사례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
- Compliance 퀴즈대회
사내 퀴즈대회를 통해 Compliance에 대한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사전 Pop-up창을 통해 퀴즈 10문제를 통해 본선 진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함.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 진행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임직원의 Compliance 준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융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모범사례, 2015.12

청렴 위반 사례

1 동일한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시사점 :

- 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②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③ 공무원 B와 D는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⑤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아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

2 여러 종류의 금품 등 제공 사례

중앙부처 국장인 A는 작년 5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같은 해 7월경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는데, A와 B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시사점 :

- ① 공무원 A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기업 임원 B로부터 받은 70만원 상당의 접대와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2회에 걸쳐 수수
- ② 공무원 A와 대기업 임원 B는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고 각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등에 비추어 1회로 평가하기 곤란
- ③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받았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④ 또한 제공자 대기업 임원 B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제공하였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

지식마당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지난 2000년, 약 160개국의 정상들은 21세기 유엔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고,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담아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8대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를 발표하였다.

No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근절
2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4	아동사망을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AIDS, 말라리아 등 질병 예방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MDGs 8대 목표>

2015년 유엔에서는 MDGs의 8대 목표에 달성 여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15년간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교육, 평등, 환경 등의 많은 분야에서는 한계점을 보였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지구의 전반적인 위기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5년간 진행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2015년 0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포함되어 있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었다.

SDGs는 과거의 성장 위주의 개발로 발생된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5대 행동영역으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 제시되었다. SDGs는 아래와 같은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및 230개의 지표로 이루어져있다.

No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2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3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4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5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6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10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11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15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16	평화적, 포괄적 사회진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17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SDGs 17대 목표>

SDGs의 모든 목표와 세부 이행과제들은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핵심 축인 경제번영,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하는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SDGs의 목표 중 MDGs의 목표와 비교하여 살펴볼 만한 점이 두가지 존재하며, 첫째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추가이다. 세계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 내 슬럼화 현상과 도심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지식마당

둘째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의 추가이며,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최빈국의 빈곤 문제에 집중하여 MDGs를 선정한 반면, SDGs는 식량, 금융, 기후변화, 에너지 등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선정하고,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함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불평등 퇴치 및 기후 변화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3. 지속가능발전 국내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의 리우 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제적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2000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구로 환경부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국내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발전시키고 있다.

2007년 08월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 및 공포되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 기반을 다졌으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오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분야 및 전문가 진단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반영하여,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출처 :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http://ncsd.go.kr/app/index.do>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6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2015



Quiz

1.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SDGs
 - ② MDGs
 - ③ DDGs
 - ④ ADGs

2. 다음 중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 ② 공직자 청렴의식 내면화
 - ③ 민-관 반부패 협업 강화
 - ④ 반부패 적발 활성화

3. 다음 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 ② 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의 양극화
 - ③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 ④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4. 다음 중 현대커머셜의 윤리경영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내부신고 채널
 - ② 내부통제
 - ③ 적발 위주의 감사
 - ④ 경영진 참여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①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은 ISO37001
2. 답 ② ‘부패행위 적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제 강화’는 권익위의 2017 주요 과제가 아님
3. 답 ②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됨
4. 답 ③ 부패의 적발 등을 통한 수사기관과의 연계는 ISO37001:2016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관련 행사

1.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8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조로 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이날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2017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했으며,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공직자 청렴의식 내면화 ▲민-관 반부패 협업강화 등 반부패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지난해 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열려 예년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성영훈 위원장은 “올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72906306>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청렴한 조직문화 위한 노력 다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색다른 방식의 2017년도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캠페인은 원장 및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및 청렴 조직에 대한 포부를 플랜카드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촬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장부터 시작한 사진 촬영은 전 부서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실시되었다.

청렴 메시지는 ▲청렴하면 사이버교육, 부패하면 사이버교육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처음처럼 청렴하게 등 직원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으며, 개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735>

3. 동부문화재단, 한국윤리경영대상 인재양성부문 대상 수상

동부문화재단은 2월 15일 '14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인재양성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윤리대상은 신산업경영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상으로 ‘건전한 기업, 부강한 나라’를 모토로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부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글로벌 리더의 양성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교육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89963>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